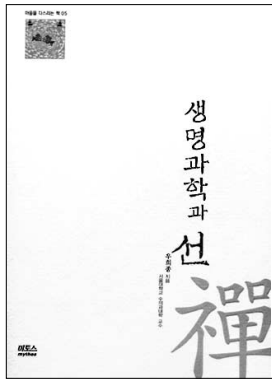


우희종 교수

무엇을 위한 생명복제인가



생명과학과 선
우희종 지음 | 미토스 | 9800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들썩한 뉴스는 단연 배아줄기 세포연구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우희종 교수는 본지에 연재했던 <불교와 생명과학, 2004년 1~12월> 글을 묶어 <생명

우희종 교수 본지 연재글 묶어 '생명과학과 선' 발간
"과학은 생명에 무지... 생명복제도 결국 욕망 때문"

과학과 선>을 발간했다. 우교수는 이 책을 통해 "생명복제 논란은 생명에 무지한 과학이 돌이킬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즉 생명과학자들의 질주 뒤에는 잉어가 치만 지상선으로 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 교수는 "생명복제"는 알고보면 생명을 품고 있는 껍질, 즉 '생명체'의 복제일 뿐"이라며 "생명 그 자체는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것(반야심경)'임에도 '생명체'를 다루는 생명과학자들은 정작 '생명'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에 무지한 이유로,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은 본래의미가 아닌 '생명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생명과학이 '생명'을 다룰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을 이라는 '개체의 소멸'과 늙음이나 병이라는 '소멸과정'을 다루는 '죽음과학'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렇다면 생명과학자는?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철학적 사유를 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우 교수는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 창출자로서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한 연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더욱 그렇다는 확신이다.

우 교수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무

엇을 위한 생명복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연구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혹여 인간의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자는 것이다.

우 교수는 "인간의 생명을 일종의 기계작용으로 파악해서 다루는 현대과학만으로는 우리의 고통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단정한다. 현대과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은 치료해야 하지만 유한한 우리 존재에 내재해 있어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욕망은 선악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욕망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물질문명의 근간을 이루게 된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수단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다보니 노동착취와 생태파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예수, 선을 말한다
진현종 옮김
지식의 숲
2만2000원

종교가 서로 배타적이고, 질시와 반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규정짓는 시각 때문이다.

종교간 대화의 역사도 고 잠재적인 갈등도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할까.

<예수, 선을 말한다>는 성공회 신자이며 불교와 도교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케네스 링(Kenneth S. Leong, 예술가 저술가)이 기독교와 선불교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선을 종교 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신 문화라고 정의한다. 이 책에서 1장부터 3장에서 선을 주

"종교의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로 예술과 비교하면서 선의 특징을 총 10가지로 규정한다. 자기 내부와 주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현전성(現前性)', 비법하고 기적적이며 자연스러운 방법인 '평범함',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며 일상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열정',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자연의 길을 따르는 '무위'를 설명한다. 또 삶을 아름답게 하는 '부드러움', 간단하게 내보이는 진리인 '단순함', 실제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역설',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균형잡고 적응하는 '우뇌적인 태도', 절대적 자유와 연관된 속박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유'를 들고 있다.

4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천국, 사랑, 믿음등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본개념들을 살펴 보면서 기독교와 선의 유사성과 합일점을 찾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진현종씨는 "이 책은 예수를 불교의 선종에 예속시키거나 혹은 선종을 예수에 종속시키려 하거나 어설픈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오히려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타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종교 전통의 잃어버려진 숨겨진 부분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아시아의 핵심 화엄사상 쉽게 풀어

중국화엄사상사 정병삼 옮김 | 민족사 | 1만2000원

동아시아 불교학의 중요한 바탕 가운데 하나인 화엄사상이 중국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책이 나왔다.

민족사가 발간한 <중국화엄사상사>는 전통적인 중국화엄의 중심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뿐 아니라 송대이후 화엄사상과 다른 불교 사상의 연관에 대한 검토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저자인 기무라 기요타카(동경대 문학부 명예교수)는 이 책에서 '화엄사상'과 '화엄교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화엄경>에 기초하여 그것을 근거로 형성된 사상일련을 '화엄사상'이라 이름하고, 그 위에 중국, 한국, 일본의 화엄종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사상을 '화엄교학'이라 분류한다. 즉 중국 화엄종의 계보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엄경을 연구한 이통현의 사상은 화엄사상에,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면서 화엄종 제 4조에 열거된 정관

의 사상은 '화엄교학'이라는 것이다.

책의 구성은 <중국화엄사상사>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중국에 한정된 느낌이 있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화엄사상까지 포괄할 정도로 서술범위가 넓다.

또 제 1장 화엄경전의 성립과 유포, 2장 화엄경의 번역과 연구, 3장 화엄경전의 전개, 4장 화엄교학의 형성, 5장 화엄교학의 대상, 6장 이통현의 화엄사상, 7장 화엄교학의 혁신, 8장 근세 화엄사상의 여러양상까지 다루고 있어 사상사라기 보다는 제요 혹은 요설로 볼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제 8장 '근세 화엄사상의 여러양상' 편은 화엄사상 가운데 특히 사상사(思想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선언, 각원의 화엄사상과 원오극근, 만승 행수의 선과 화엄, 이지의 불교를 고찰한 성과가 돋보인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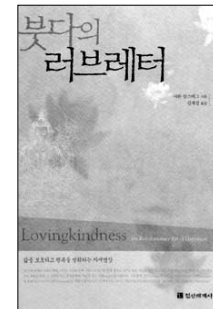
나와 이웃 함께 행복해지는 수행

붓다의 러브레터 김재성 옮김 | 정신세계사 | 9500원

크나큰 자비심을 지닌 붓다가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러브레터. 그것은 잠재된 사랑을 깨닫고 길러내는 것은 물론 자기와 남을 보호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자애(慈愛)명상이다. 정신세계사가 발간한 <붓다의 러브레터>는 내안에 잠재된 사랑, 고마움 사람들, 사랑스런 친구들, 믿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 내안의 가다로운 측면, 온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자애를 보내도록 해주는 명상 수행법을 알려준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해야하는 네 가지 수행법인 붓다의 덕목, 육체의 부정함, 죽음에 대한 명상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는 명상이 자애명상이다. 자애명상은 이른바 자비관이라고도 불리는 수행법으로 실제적인 삶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마음 닦는 법이다.

이 책에서 저자인 사른 살스버그(미국 통찰수행회 지도법사)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붓다가 일반 재가자들에게 실천하라고 제시한 세가지 덕목인 베풀(보시)과 계를 지키는 이유, 천상에 이르기 위한 수행인 사무량심(四無量心)에 대해 설명한다.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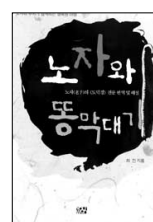
■ 깨달음에 이르는 길(달라이 라마, 하얀연꽃, 1만2800원) = 달라이 라마가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강설한 <입보리행론>을 정리한 것. 티베트 불교의 중요 경전인 <입보리행론>을 달라이 라마의 탁월한 견해와 명쾌하고 간결한 주석으로 만나본다.



■ 마이산의 메아리(이영선, 신아출판사, 9000원) = 진안 마이산 탑사의 돌탑군의 축조 기법과 축조자인 이갑을 처사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돌탑 연구자료 및 역사사료를 비롯 축조 목적자 증언과 전문가의 견해도 실려 있다.



■ 노자와 똥막대기(최진, 유원출판사, 1만4500원) = 노자의 <도덕경> 전문 번역 및 해설서로 선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노자의 도(道)를 무(無)로 해석한 기존의 태도와 달리, 무는 도가 아니며 현상계의 두 양태(有와 無)의 하나로 확인한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송기파, 4만3000원
 - 금강경(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운주사, 김광하, 9000원
 - 산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줄 바움, 문운경, 1만원
 -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조계종출판사, 편집부, 1만5000원
 - 달라이 라마의 반야심경 무우수, 달라이 라마, 85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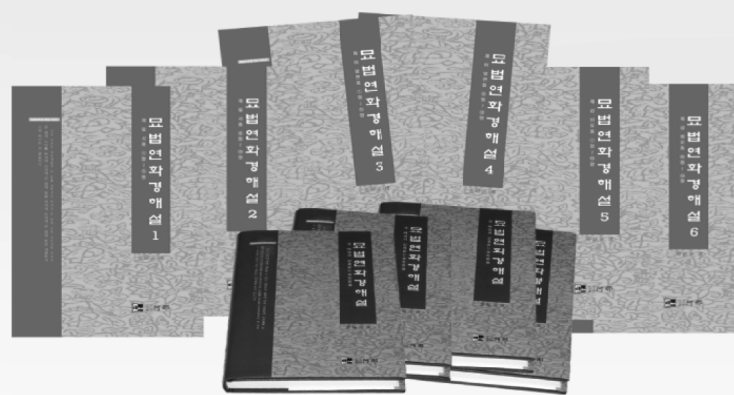


◇ 무량의경 I / II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초월(超越)의 학문이 묘법연화경이다.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초월(超越)한다.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점자리 안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팔자의 저서 '상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말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 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